

“국가폭력의 ‘방패막’ 인권...공기처럼 소중한 것은 아닌가”



‘인권운동가’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메이플 건물 1층 카페에서 인권운동가인 서승(70) 일본 리츠메이칸대 대학 특임교수를 만났다. 서 교수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개막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 사카미미술관 사카미 미치오 관장, 오키나와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와 옛 묘역을 둘러보고 오던 길이었다.

그는 “일본 사람들에게 광주의 아픔이 서린 곳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얼굴과 손에 있는 자독한 화상자국은 서 교수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1945년 ‘해방동인’인 서 교수는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71년 ‘재일교포 학생학원침투 간첩사건’에 연루돼 육군 보안사로 연행됐다. 그의 화상 자국은 고문에 저항하다가 분신을 시도해 생긴 상처로, 국가 폭력의 전형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20년, 감옥에서 19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대학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또 각종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등 인권운동을 위해 몸 받쳐온 그에게 ‘인권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사람들이 이제는 총족하다고 생각해서 인권에 대해 답답해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공기와 물처럼 말이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인 것이 국방이고, 대내적인 것이 치안인데 그게 곧 국가의 공권력이다. 근데 그 공권력이 5·18과 같이 시민을 물어뜯으면 그게 곧 국가 폭력이다. 인권은 이런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다.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처럼 소수자가 말로 안될 때 다수에게 가하는 폭력이 국가 폭력이다.”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에서 ‘비교인권법’을 가르치고 있다. 비교인권법은

‘세계대전’ 담은 케테 콜비츠작 광주비엔날레 전시 ‘산파’ 역할

‘재일교포 간첩사건’ 연루 19년간 감옥살이·분신 시도 5·18 치유 조급증 아쉬워

각 나라와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법률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서 교수는 주권인식을 강조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인식이 결여돼 있다. 반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건 곧 권력자의 오만이다. 아베 총리의 잘못된 정책과 망언도 그런 연유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자신들이 국민 모두의 의견을 대변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감옥에서 억울한 19년을 보낸 그는 “후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크게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고, 자신의 경우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년이 너무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빼앗긴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건 인생의 일부다.”

그는 광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서 교수는 1990년 2월 출소 직후 광주를 찾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광주를 찾아 아픈 역사를 몸소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광주를 방문하면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광주는 5·18을 상대방에게 안기려고만 한다. 국립묘지에 있는 5·18 기념관만 보더라도 그렇다. 음악과 영상, 소리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이다. 아픈 역사는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 ‘사세요. 보세요’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보고, 듣는이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광주 시민도 아니고, 5·18 재단 이사장도 아니지만 내 인상은 그렇다.”

서 교수는 이번 특별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그려온 여류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타이완을 오가며 국가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를 외쳤던 그는 10여 년 전부터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사카미 미치오 관장과 친분을 쌓아왔다. 그리고 특별전 소식을 듣고 작품을 대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3회 광주비엔날레 때 광주를 찾기도 했던 사카미 미치오 관장은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둔 비엔날레에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

사카미 미치오 관장은 “나치 치하에서는 퇴폐 미술로 거부당했던 케테 콜비츠의 작품은 전



케테 콜비츠 작 ‘희생자들’

쟁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은 아픔과 비극 그 자체를 담담하게 승화시킨 작품이다”며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아픔들은 독일은 물론 일본과 광주를 관통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전이 광주를 비롯해 오키나와, 제주, 타이완 등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다룬다는 점은 서 교수가 저서 ‘동아시아 평화기행’을 비롯해 현장에서 외쳐왔던 그간의 삶의 궤적과 맥락을 같이하기도 한다. 특히 독일에서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는 그의 초상을 이번 전시에 걸기도 했다.

서 교수는 “초등학교 때 꿈은 ‘비행기를 타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흥성담 작가보다 더 유명한 화가가 됐을 것”이라며 “윤범모 교수에게 국가폭력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했는데 전시에 잘 녹여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20년 명성 ‘와르르’

특별전 큐레이터 사퇴·작가들 작품 철거...미술인들 예산 집행 사과 요구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흥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호’를 특별전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책임 큐레이터 사퇴에 이어 일부 참여 작가들이 작품을 철거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미술인들이 “특별전 관련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며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특별전 ‘달콤한 미술, 1980년 그후’ 참여

작가인 이윤엽, 흥성민 작가는 11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 자신들의 작품 작과 정영창 작가의 작품작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작품은 이윤엽 작가의 ‘대추리에서 세월호까지’, 흥성민 작가의 ‘아시아의 숲-그날’, 정영창 작가의 ‘서승’, ‘정대세’ 등이다. 이윤엽 작가는 “흥성담 선생님의 작품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검열을 통과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치욕스러웠다”며 “지난 20년 세월 이상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작업을 해온 작가로서 ‘광주정신’과 ‘국가폭력’을 다루는 전시에 초대받았을 때는 영광이었는데, 이제 와서 비엔날레

를 보니 문화를 보는 눈이나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천박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특별전을 기획한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시에 있다. 특히 논란이 된 흥성담 작가의 ‘세월호’는 이번 특별전에서 유일하게 제작비를 지원해 새로 제작한 신작이다.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상상력’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작가와의 교감을 중시한 나뉘었다면 이번 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논란 이후에도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사태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광주시가 ‘오락

가락’ 행보를 보이며 ‘세월호’ 작품 전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광주비엔날레재단에게 넘겼지만 재단은 “큐레이터들이 합의 되지 않아 작품 전시를 유보하고 있다”고 책임을 큐레이터에게만 돌리고 있는 꼴이다.

일부 재단 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광주비엔날레다”며 사태의 근본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지난 20년간 쌓아온 전시 기획과 행정에 대한 경험에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광주미술, 광주전업미술가협회,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파행적 개혁행사 등으로 논란이 분분함에도 책임지려는 인사가 없고 본질이 호도되고 있고, 전시 전에도 예산 집행 중 비민주적 작가 선정과 창작지원금 차등 지급에 따른 불투명성이 불거졌다”며 “이번 사태를 유발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시립미술관 등



이윤엽 작가가 11일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대추리에서 세월호까지’를 철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 기획 핵심자 등은 광주문화예술인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전시의 본질보다는 ‘세월호’ 작품 논란에만 어

론이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않는 선에서 작품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